

바지락·손낙지·새꼬막 ... 먹거리 볼거리 풍성한 '황금바다'

봄 회천감자·여름 옥수수과 콩·가을 쪽파가 유명
넓은 갯벌에서 손으로 잡는 '손낙지' 신나는 체험
체험 관광객들에 호미·장화 등 각종 장비도 대여
비봉공룡알 화석지·차박물관·울포해수욕장 인근에

드넓은 논밭을 지나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눈앞에 바다가 펼쳐진다. 바다를 끼고 언덕위로 등성등성 마을이 형성돼 있고 마을과 바다 사이 논밭에 갖가지 농작물이 자라고 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아스팔트 아지랑이도 어촌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을 감추지는 못했다.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 석간마을의 첫 인상이다.

군농리는 9개의 자연마을로 이뤄져 있다. 4개 마을은 군농리 1구, 5개 마을은 군농리 2구로 각각 나뉜다. 군농리 2구에는 당산마을, 농소마을, 화동마을, 분배마을, 석간마을까지 92 가구에 170여명이 살고 있다. 이 중 23가구가 모여 어촌계를 이루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가장 인접한 석간마을 이름을 따 '석간어촌계'라 불린다.

이곳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마을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어촌마을이다. 봄에는 회천감자, 여름에는 옥수수나 콩·깨, 가을에는 쪽파를 수확한다. 기후가 좋아 삼모작이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감자의 경우 음력 설 전에 심어서 5월에 출하하는데 제주도 다음으로 노지감자가 빨리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석간어촌계의 주 수입원은 바지락과 손낙지, 그리고 보성의 대표 특산물인 꼬막이다. 이곳에서 나는 꼬막은 '똥꼬막(새꼬막)'으로, 참꼬막과는 달리 껍질이 가늘고 털이 많이 나 있다. 새꼬막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갈퀴나 그물을 이용한 대량 수확이 가능해 가격은 참꼬막보다 저렴하다. 불철 많이 잡히는 낙지는 손으로 잡는다고 해서 '손낙지'라고도 불린다. 이곳 갯벌에 낙지가 많이 사는 이유는 '절기미(절개)'가 많기 때문이다. 절기미를 먹기로 삼는 낙지는 무안 새발낙지보다 크기가 크다. 금어기만 지나면 언제든 낙지를 잡을 수도 있다.

머리 위 광활한 태양이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하는 때를 맞춰 바닷물도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오후 4시가 되자 마을 어장 33ha가 온전히 속살을 드러냈다. 아직은 개밭의 손이 미치지 않은 탓에 갈대숲 너머의 갯벌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우리 특산물 갯벌에서 자라난 꼬막이나 낙지, 바지락은 맛이 아주 좋아요. 한마디로 별로 해서는 서해안 대전보다 월등히 좋은 뽕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소개해주는 오숙자 어촌계장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친다.

보성군과 고흥군, 장흥군으로 둘러싸인 득량만은 80년대 이전까지 '황금바다'로 불렸다. 자연산 키조개가 많이 생산되고 특히 꼬막 채묘로는 최적이었다. 그러다가 1982년 적조가 발생하면서 어장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고 황금바다의 명성은 사라져갔다.

"당시에는 꼬막 종패의 가격이 1미당 책정됐어요. 땅에 1cm 정도 크기의 종패를 가득 채워서 일일이 개당 가격을 매겼으니 돈이 얼마나 쏟아졌겠나 말이지. 지금은 그때에 비해 100분의 1이나 될까요. 그 정도로 '황금바다'였다는 거지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득량만의 어촌은 여전히 풍부하고 명성이 높다. 해마다 수확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석간어촌계에서만 20kg들이 새꼬막 3500망을 수확했다. 어촌계장은 황금바다 전성기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장을 제대로 관리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석간어촌계는 33ha 마을 어장 외에 49ha의 바다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다. 취재진이 찾아가 낚, 양식장에서는 꼬막 채묘가 진행되고 있었다. 8월 중순이나 9월 초 씨가 붙어서 1~2cm 크기의 종패가 되면 바다에 뿌린다. 이 종패가 1~2년 자라 새꼬막 성패가 되는 것이다. 마을에서 수확하는 꼬막이나 낙지 등은 인근 위판장으로 판매되지만 어촌계로 직접 연락할 경우 택배 배달도 가능하다.

석간마을은 어촌체험마을로 등록돼 있지는 않지만 어촌계에 연락을 할 경우 누구나 와서 무료로 갯벌을 체험할 수 있다. 칠게나 바지락, 쪽, 꼬막도 터러 수확할 수 있으며 어촌계에서는 가족단위 체험객들에게 호미나 장화 등 장비도 대여해 줄 계획이다. 물때는 바다타임(www.bada-time.com) 사이트에서 '녹동'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마을과 바다 사이에는 보성군이 조성한 '다향길'이 이어진다. 가을에는 알록달록 코스모스를 감상할 수 있고 연내 팽나무를 심어 그늘도 조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마을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장관이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테코도 마련돼 있다. 마을 인근에는 비봉공룡알 화석지와 한국차박물관, 울포해수욕장 등이 있어 어촌마을을 둘러보고 관광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문의 어촌계장 010-3604-1174.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드넓은 논밭과 득량만 갯벌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 석간어촌계 마을 전경. 당산·농소·화동·분배·석간의 5개 자연마을로 구성된 석간어촌계는 똥꼬막(새꼬막), 손낙지, 바지락이 많이 생산된다.



바다를 끼고 있지만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어촌마을이다. 봄에는 회천감자, 여름에는 옥수수나 깨, 가을에는 쪽파까지 '삼모작'이 가능하다.

"갯벌 체험 오세요. 대전보다 좋아요 마을~갯벌 이동 나무다리 설치 시급"

오숙자 어촌계장

"석간어촌계의 마을어장은 개밭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나 관광객이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는 길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어촌계를 이끌고 있다는 오숙자(여·66) 어촌계장은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바닷가 마을을 '찾아오는 어촌'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새꼬막이나 손낙지, 고동, 쪽, 바지락 등이 살 수 있는 질 좋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찾아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해 인근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저희 어촌계에 소속된 대부분의 계원들은 '황금바다'였던 80년대 이전에 가입된 분들이 많습니다. 어업을 주로 하는 계원은 4가구 뿐이고 대부분 농사일에 종사하고 연세가 많다 보니 어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오고 있어 그들의 노력이 이어진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 계장은 마을어장 활성화를 위해 마을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자율어촌계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과학원에 갯벌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며, 대전 머드축제에도 다녀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생각이다.

무엇보다 도시민들이 찾아와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건 체험객들이 마을에서 갯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나무다리를 조성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갯벌 체험을 하고 싶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경우 저희 어촌계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어장 청소를 하고 안전하게 갯벌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숙박을 희망할 경우 저희 집에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마을을 찾아주세요."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찾아오는 길

보성 석간마을 (전남 보성군 회천면 충의로 387-1)

- ▶ 승용차
호남고속도로→유덕톨게이트→송암톨게이트→지원교차로'장흥,화순'방면→장수교차로'안양,회천'방면→울포해수욕장에서 '득량'방면→충의로 따라 4.96km
-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보성시외버스터미널→보성-천포행 농어촌버스(약1시간30분)→석간정류장하차(도보4분)
- ▶ 열차
용산역→보성역→우산리정류장(도보2분)→보성-천포행 농어촌버스(약55분소요)→석간정류장하차(도보4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언제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 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